

19기 캄보디아 앵콜팀 두 번째 보고서



OCTOBER 2019

[CONTENTS]

1. 앵콜 팀의 활동

- 1) 아띠 교실
 - YI (Youth Institute)
요리교실, 체육교실, 컴퓨터교실, 수업보조
 - YLC (YMCA Learning Center)
영어교실, 미술교실
- 2) 아띠 프로젝트
- 3) OPA 노인의 날 행사
- 4) YLC 교실 Repair
- 5) Halloween Party in YI, YLC

2. 앵콜 팀의 이야기

- 1) Sochy와의 영화관 나들이
- 2) 캄보디아에서의 헤어 변화
- 3) 아띠 선배와의 만남
- 4) 캄보디아 Y staff와 식사
- 5) 앵콜 팀의 One pick
- 6) YLC 선생님 송별회
- 7) 우리들의 일상 모습

3. 앵콜 팀의 10월

- 1) 우리들의 고민
- 2) 이번 달을 돌아보며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YI (Youth Institute)
에서의 교육활동**

1. 요리 교실

형아 미소 😊



김밥을 말아보자
옆구리 터짐 주의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Step 1. 김밥 재료 준비

근처에 한인 마트가 있어 김밥재료를 모두 구비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말기 전, 재료를 손질해 정렬해 놓았다.



Step 2. 김밥에 대한 설명

아이들에게 김밥 재료와 김밥이 소풍 날 먹는 음식임을 설명했다. 이후, 재료 맞추기를 했는데 집 가는 길에도 김밥재료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Step 3. 직접 말아보자!

시범을 보인 후,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말았다. 아이들은 재료를 하나씩 넣고 마는 것을 재밌어 했다. 완성 후, 아이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었지만 껌잎은 모두 골라냈다는 후문이..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2. 체육 교실



정석, 정근의 축구, 줄넘기 교실

야외 활동은 뜨겁다!

Step 1. 줄넘기를 해보자



아이들은 줄넘기를 곧 잘했다.

날이 뜨거웠지만 모두 즐겁게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혼자서도 해보고, 단체로도 해보았는데

아이들이 공을 정말 좋아해서 축구로 바로 넘어갔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Step 2. 다 함께 축구를



YI 아이들과 처음 스포츠 수업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야외수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아이들을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당황하기도 했다. 야외활동 시에는 더욱 꼼꼼하게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3. 컴퓨터 교실



유선이의 포토샵 교실

YI에 매일 출근하는 Chariya

Step 1. 포토샵 다운로드부터!



포토샵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포토샵부터 다운로드 해야 했다. 불안정한 와이파이 때문인지 총 5대의 컴퓨터에 포토샵을 다운로드 하는 데 3일이 넘게 소요됐다. 그래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마침내 포토샵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Step 2. 처! 처! Chariya!!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너무 막막했다. 아이들이 컴퓨터만 보면 유튜브를 키거나 다른 친구가 수업을 받고 있으면 그 사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 수업은 커녕 유튜브를 끄러 다니기 바빴다. 다행히 지금은 유튜브를 키면 내가 바로 쫓아가 끄다는 사실을 알고 커지는 않고 빨리 수업해달라는 의미로 처! 처!(선생님! 선생님!) 하며 기다리고 있다.



수업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단축기를 사용하며 배울 수 있을까? 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아이들이 수업 도중 도망가거나 중간쯤 하다 처! 하으하으...! (선생님! 다 끝했어요...!) 라고 말하고 나가기 일쑤다. 또한 아이들의 집중이 내가 수업을 준비한 노력에 비례하는 것을 느꼈기에 매주 주말에 어떤 수업을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늘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도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기쁘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4. YI 선생님 Thida와 함께



주입식 교육 chariya

그림으로 고통받는 pkay

Step 1. 수업 보조 & 수업 진행



YI에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이 3층 하나 뿐이다. 이 한 교실안에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같이 앉아 수업을 듣는다. 그러다 보니 쉬운 것을 배울 땐 고학년들이 놀고 있고 어려운 것을 배울 땐 유치부, 저학년들이 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한 것은 YI 선생님인 Thida를 도와 그날의 수업주제에 맞는 내용을 수준별로 따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수업 계획을 짜서 Thida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내고 그 과목을 가르치는 날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YLC (YMCA learning center)
에서의 교육활동**

1. 영어 교실



Teacher Bopha(재희) 의 영어 교실

Who make a noise??!!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Step 1. 수준별 수업 계획



재희 단원은 YLC에 고정 선생님이로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편성된 수업시간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며 아이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돕고 보다 다양한 수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같은 반에 서로 다른 레벨의 학생들이 있어 수준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개개인 맞춤형 숙제와 아이들의 열정으로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Step 2. 상상력 증진시키기



수업의 끝에는 항상 아이들에게 생각을 물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발표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다. 또 누군가의 발표가 끝난 뒤 박수를 쳐주는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생각이라도 존중해줄 수 있는 포용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2. 미술 교실



정은이의 그리기, 만들기 교실

Teacher, me! me!

Step 1. 슬리퍼 만들기 (스바에 썸)



정은 단원은 평소에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며 수업에 대해 메모한다. 그러다 아이들이 내 다이어리를 가져가 낙서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미술 수업을 해보기로 했다. 첫번째로 계획한 만들기 수업은 슬리퍼 만들기다. 유치원 때, 슬리퍼를 만들어 신었던 것이 재밌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야심 차게 준비한만큼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너무 나이가 어린 반에서 진행했는지, 발을 대고 그리고 자르고 붙이는 과정을 나와 선생님이 모두 해줘야 했다. 조금 더 큰 아이들 반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 앵콜 팀의 활동

1) 아띠 교실

Step 2. 왕관 만들기



두 번째로 야심 차게 준비한 왕관 만들기 수업.
첫 시간에는 crown, queen, king을 가르쳐주고
두번째 시간부터 아이들의 머리에 맞게 종이를 붙이고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머리에 딱 맞는 왕관을 쓰니까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고 각자 개성 있게 자신의 왕관을 열심히
꾸미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만 첫 시간에 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니까
지루해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무리 반복해도
단어를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계속
같은 단어를 하면 지루해 하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단어를 학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할 거 같다.

1. 앵콜 팀의 활동

2) 아띠 프로젝트

Hem Thel 감사님과 미팅



**아띠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

Step 1. 현장 조사

앵콜팀은 9월 한달간 우리의 활동지역을 돌아보고, 10월까지 아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했다. 캄보디아 YMCA에 크게 YLC, YI, OPA. 이렇게 세 기관이 있으므로 어떤 기관에서 아띠 프로젝트를 진행할 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각 기관을 꼼꼼히 다시 돌아보기로 했다.



**# 복잡한
이해관계 속
혼돈의
아띠 프로젝트**

OPA 커뮤니티를 돌아보는 앵콜팀

1. 앵콜 팀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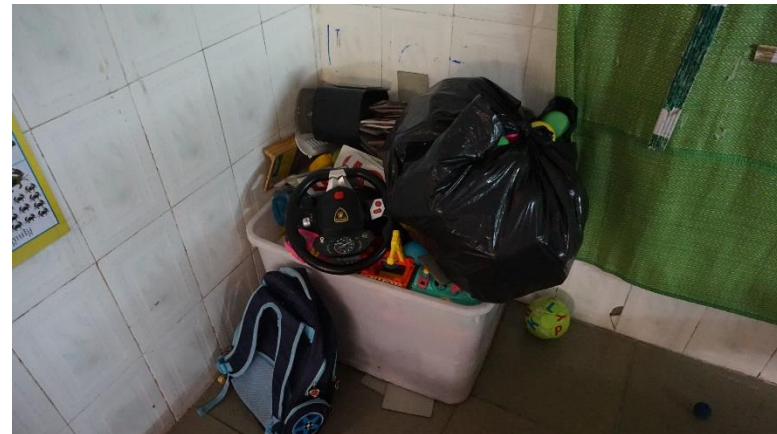
2) 아띠 프로젝트

OPA 담당 director, 봉사자들과 미팅



지역 주민들과 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OPA (Old People Association)에서의 주된 안건은
노후화로 재정비가 필요한 노인분들의 집, 도로, 수도관 등에
대한 것이었다.

YI director인 Nimey와도 YI에 갈때마다 의견을 나누고 앵콜팀 내에서도 회의를 한 결과 YI의 주된 안건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었다. YI에는 그네나 미끄럼틀은커녕 부러지거나 오래되어
수명이 다 된 장난감들 뿐이다.



1. 앵콜 팀의 활동

2) 아띠 프로젝트

Step 2. 의견 조율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의 의견과 앵콜팀의 의견을 조율하여 아띠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단순 재정 지원이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두 달 밖에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이 안건을 정하는 것도 어려웠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캄보디아 Y에서 원하는 것에 따르고자 했으나, 결국 아띠 프로젝트의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Step 3. Proposal 작성



다시 팀 내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새로운 주제로 아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 밤을 고민하며 프로포잘 작성을 완료했다.
앞으로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지 기대가 된다.

1. 앵콜 팀의 활동

3) OPA 노인의 날 행사



10월 14일
OPA 주관 행사 참여

OPA 담당 director와 봉사자들은 14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바빠졌다. 10월 1일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14일 캄보디아 YMCA는 노인분들을 500명 초대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쌀과 간장 등의 생필품을 선물했다. 앵콜팀은 행사에 동참하여 쌀을 나르고 노인분들의 거동을 도와드렸다. 추후 OPA 커뮤니티에 방문했을 때 노인분들은 우리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고마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YMCA Staff로
협력하여

1. 앵콜 팀의 활동

3) OPA 노인의 날 행사

쌀을 함께 옮기고 있는 앵콜팀



캄보디아
배우와
함께!



행사가 끝난 후, YMCA staff들과

1. 앵콜 팀의 활동

4) YLC 교실 Repair



**계단 난간에 이어
이번엔 교실 페인트칠이다!**

Step 1. 페인트 재료 구입

지난 달 계단 난간을 새 단장 시켰던 앵콜팀이 이번 달에는 교실 벽면을 페인트칠하게 되었다. 역시나 고된 작업이었지만, 두 번째 페인트칠이라 그런지 모두 능숙하게 페인트칠에 임했다.



민.말.앵 (민고 말기는 앵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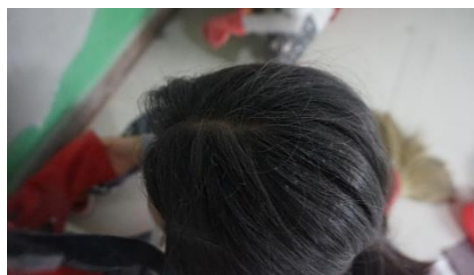
1. 앵콜 팀의 활동

4) YLC 교실 Repair

Step 2. 기존 페인트 벗겨 내기



Step 3. 사포질 하기



페인트를 칠하기 전, 기존 페인트를 벗겨낸다.
벗겨내지 않아도 되는 면은 사포질을 해준다.
열심히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흰머리가 된다.

Step 4. 페인트칠 하기



롤러와 붓으로 꼼꼼히 페인트칠해주면 끝.
다음 repair 프로젝트도 기대해주세요!

1. 앵콜 팀의 활동

5) Halloween Party in YI, YLC



HALLOWEEN PARTY
- YI 편 -

Step 1. YI 장식하기

미리 준비해간 풍선과 그림을 벽면에 붙여 할로윈 분위기를 한껏 내보았다.



trick or treat !
준비한 게임은 5분 컷이었다

1. 앵콜 팀의 활동

5) Halloween Party in YI, YLC

Step 2. 게임을 준비한다.



아이들이 색칠공부를 하는 사이 재빠르게 ‘양파링 먹기’ 게임과 ‘밀가루 속 사탕 먹기’ 게임을 준비한다.

Step 3. 게임을 진행한다.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재밌게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
열심히 준비했지만 게임은 5분만에 끝이 났다.

1. 앵콜 팀의 활동

5) Halloween Party in YI, YLC



YI 이곳저곳에 쪽지를 숨겨놓고 '보물찾기' 게임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 주었다.

Step 4. 기념촬영으로 마무리!



1. 앵콜 팀의 활동

5) Halloween Party in YI, YLC



HALLOWEEN PARTY - YLC 편 -

Step 1. YLC와 우리들의 할로윈 분장

YLC는 공터를 꾸며 할로윈 분위기를 내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기 앞서, 우리들도 과감하게 할로윈 분장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유선이는
오늘도
YI에...!

할로윈 분장으로 애들 울리기
게임이 가능한 한 거지..?

1. 앵콜 팀의 활동

5) Halloween Party in YI, YLC

Quiz. 누가 YLC 학생을 울렸을까요?

기호 1. 슈렉 정은



기호 2. 뱀파이어 정근



기호 3. 할리퀸 재희



기호 4. 광대 정석



기호 5. 펠킨 유선



정답은 각자의 마음 속에^^

1. 앵콜 팀의 활동

5) Halloween Party in YI, YLC

Step 2. 페이스페인팅 해주기 & 풍선 만들어 주기



Step 3. 게임 진행하기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림보, 줄다리기, 보물찾기 등의 게임을 진행했다. 다만 전 교생이 한 자리에 모이니 통제가 쉽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

2. 앵콜 팀의 이야기

1) Sochy와의 영화관 나들이



**Sochy와 함께 간
Local 영화관 나들이**



앵콜팀에게 영화를 보자고 먼저 제안해준 Sochy.
Sochy는 캄보디아 YMCA 재정을 맡고 있어 우리들에게 매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앵콜팀의 mom으로 불린다.

Sochy의 픽은 걸캅스였고, 무려 크메르어 더빙에 영어 자막이었다. 우리들은 한국영화를 한국어로 보지 못하는 웃픈 경험을 했지만 즐거운 나들이였다.

**# 한국영화를 크메르어 더빙으로
봤다는 웃픈 이야기**

2. 앵콜 팀의 이야기

2) 캄보디아에서의 헤어 변화



빨간색으로 다시 염색한 재희

메인 미용사 정은

보조 미용사 정근_여자 머리 염색은 처음이야

헤어 변신에 도전한

재희와 정은



줄곧 해보고 싶던 투 블럭에 도전한 정은

이 세상 편함이 아님

_머리 감기 3분 컷

2. 앵콜 팀의 이야기

3) 아띠 선배와의 만남



**라온아띠 10기 선배와의
점심식사**

정석 단원의 교회를 통해
라온아띠 10기 선배가 프놈펜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고,
프놈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
다. 10기 선배는 라온아띠를 다녀온 지 꽤 많은 시간
이 지났음에도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고 우
리들은 서로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 선배는 라온아띠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의 5개월이 앵콜
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해진 날이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띠는 아띠다
뜻밖의 즐거운 만남

2. 앵콜 팀의 이야기

4) 캄보디아 Y staff와 식사



김치 부침개
장인 재희
리액션 최고

한국 음식 어때요?
칭안 나! (very delicious)



chea, vothy 야간 근무하는 날
앵콜팀의 식사자리는
늘 welcome ☺

2. 앵콜 팀의 이야기

5) 앵콜 팀의 One Pick

정은의 원픽

: 호일란. 볼이 모짜렐라 치즈 같아서
버거킹 크림 치즈볼과 비슷할 것 같다.



유선의 원픽

: 볼살이 정말 귀엽다.

공부를 가르쳐주면 한마디 한마디가
느리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정석의 원픽

: 말도 잘 듣고, 수업도 잘 따라와서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아이다.



앵콜 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정은의 원픽

: 허리에 손을 얹고 나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



재희의 원픽

: 비샷. 애칭 도마뱀.
먼저 다가가면 항상 도망가지만,
무관심할 때는 어느새 옆에 와있는
고양이 같은 매력이 있다.



2. 앵콜 팀의 이야기

6) YLC 선생님 송별회



**2개월 간 정들었던
YLC 두 선생님과
의 작별인사**

지난 2개월 간 우리들이 캄보디아 Y에 적응할 수 있도록 편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던 두 선생님이 YLC를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직접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업을 보조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선생님 두 분이 그만둔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었다.

5개월 후에 캄보디아 Y를 떠날 때는 얼마나 아쉬울지 상상이 안된다. 남은 3개월 간 아이들과 해보고 싶었던 것 다하고 후회없이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감사했어요

남은 3개월도 떠쑈 (파이팅)!

2. 앵콜 팀의 이야기

6) 우리들의 일상 모습



엽떡이 없다면 만들어 먹겠다



생 망고+ 요거트
= 천상의 맛



파스타&
스테이크 (매우 질긴..)



닭볶음탕, 샐러드

참 다양하게 잘 먹는

앵콜 팀 ^0^



부리또 만들어 먹기



기름 떡볶이 꿀맛

3. 앵콜 팀의 10월

1) 우리들의 고민



정은

10월은 정말 빨리 지나갔다. 무언가 바쁘게 한 거 같긴 한데 돌이켜보니 크게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달은 특히 end poverty 캠페인에, 페인트칠에, 교육활동 이외의 다른 것들로 바빴다. 그러다 보니 내 수업을 많이 못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지도 모르겠다.

평소에는 당장 앞에 닥친 일들을 해치우기 바쁘는데 라온아띠를 하면서는 늘 내가 잘 하고 있는게 맞는지 돌아보게 된다. 주어진 것이 아닌 알아서 잘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게 된 한 달이었다.

이번 달,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유선

나에게 10월 달은 9월보다 조금 더 힘이 들었던 것 같다. 캄보디아에서의 10월은 매주 공휴일이 하루 씩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휴일과 주말이 오길 바라며 버텼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 반복되는 삶에 조금 지쳤던 건 아닐까 싶다. 아침 7시도 안 되어 일어나 YI에 가서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크메르 수업을 듣고 난 후 회의를 하면 이미 밤이 되어있다. 미래 내가 직장인의 삶을 살면 이럴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른들의 말씀처럼 학생때가 좋다는 것에 공감을 했던 것 같다.

3. 앵콜 팀의 10월

1) 우리들의 고민



정석

프놈펜에서의 2달 차에 접어들었다. 생활적인 측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한 달이 지나갔던 거 같다. 첫 달에는 몰랐지만 수도에 살다 보니 불편한 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도 많기에 더욱 고민 없이 생활했던 것 같다. 고민을 찾자면 주어진 일들 외에 이것저것 계획해서 진행하고 싶었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을지 고민했던 것 같다. 또한 팀원들이 찢어져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것과 YI에 간 팀원들에게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해결됐으면 한다.



재희

이번 달,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수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다. 아이들은 언제 봐도 예쁘지만, 수업에 들어가면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자리에 앉지 않으면 화를 내고 엄격하게 대한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 기억 속에 재미있는 언니같은 존재로 남아있고 싶은데 무서운 외국인 선생님이라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요즘 들고 있다. 또한 근래에 입맛이 없어 밥을 조금 먹었는데 그것이 건강으로 연결되어서, 앞으로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금씩이라도 자주 먹어 체력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

3. 앵콜 팀의 10월

1) 우리들의 고민



정근

딱히 고민은 없다. 그저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뿐이고, 이제는 스케줄도 익숙해지는 것 같다. 피곤해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제는 캄보디아에 대한 설렘보다는 익숙한 느낌이 더 크다. 익숙함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고 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 어떤 활동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늘 따라다닌다.

3. 앵콜 팀의 10월

2) 이번 달을 돌아보며

10월, 어땠나요?



정은

9월은 적응하기 바빴는데, 10월이 되니까 확실히 안정적으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느낌이다. 팀 생활도 그렇고, YMCA에서의 활동도 그렇다. 이제는 팀원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서로가 조금 더 허물없는 사이가 된 거 같아 좋다. 적응이 됐다고는 해도 매일, 매주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있다. 하긴 고민이 없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고민이 고민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매일 스케줄이 힘드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 같다. 조금 더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3. 앵콜 팀의 10월

2) 이번 달을 돌아보며



유선

9월 달엔 우리에게 다가오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적응하기 바쁜 것도 있었고 처음 주어진 일에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했던 것도 있다. 하지만 적응의 기간도 끝났고 하는 일에 안정화가 되니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우리나라같이 똑같이 감정과 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다가와준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서야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보였고 그 사람들의 용기가 보였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 남은 3개월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0월, 어땠나요?



정석

전달에 비해 10월은 편안했다. 적응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YMCA가 내 집처럼 느껴지고 있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졌다. 활동에 있어서는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즐거웠던 것 같다.

10월 캠페인과 겹쳐 OPA어르신들 사진 찍어주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11월, 12월에는 모든 OPA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싶다.

Panha 선생님과 크메르어 수업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짧게나마 크메르어를 써가며 더욱 친해지고 있어 재미있는 10월을 보냈다.

3. 앵콜 팀의 10월

2) 이번 달을 돌아보며



정근

10월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다. 페인트 칠과 할로윈 데이 준비 등으로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10월에는 계획적인 활동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활동에 활동이 겹쳐서 계획이 자꾸 미뤄지는 일정 때문에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었다. 11월에는 계획의 정확성에 더 큰 초점을 두어야겠다. 캄보디아 현지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현지 간사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한 달이었다.

10월, 어땠나요?



재희

벌써 10월이 지나가고 활동 중반인 11월이 오고 있다. YLC에 고정 선생님이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수업 시간을 만들어줬는지, 혹시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한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10월을 통해 할로윈 데이 등 아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몸이 좀 약해져서 팀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11월에는 좀 더 영양 보충을 많이 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THANK
YOU**



11월에 계속..